



‘아시아 신’ 황선우, 자유형 200m 2연속 금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가 소트코스(25m)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황선우는 18일 호주 멜버른 스포츠 앤드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소트 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선에서 1분39초72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냈다. 그는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5회 대회에서 1분41초60으로 1위를 차지, 자신의 메이저 대회 첫 메달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뉴시스

해남서 육상국가대표 후보선수단 전지훈련

도약·중장거리 선수 86명 동계 훈련 ‘구슬땀’



해남군 우슬벌이 육상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의 훈련 열기로 가득찼다. 육상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이 해남을 찾아 동계전지 훈련에 돌입했다. 오는 2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동계훈련에는 도약 및 중장거리 종목 선수와 지도자 등 86명이 참여해 개인 기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해남군은 2022~2023 동계기간 동안 연인원 4만명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계획으로, 12월 들어 동계전지훈련팀의 방문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골프와 역도, 육상, 펜싱 등 5개 팀, 117명이 해남을 찾은 가운데 내년 2월까지 펜싱과 축구, 근대5종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해남에

서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지훈련 기간 동안 선수단은 해남군 관내에 머무르며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적은 겨울철 소상공인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육상국가대표 선수단은 북평면 김치마을에서 김장체험을 하고 닭근 김치를 해남대원에 기부하는 등 운동을 멈추고 해남의 맛과 멋을 느끼며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수연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 전임감독은 “선수단이 체류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해남군과 지역주민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역대 최고의 결승전’...전 세계 열광

아르헨티나, 연장 끝 승부차기서 4-2 승리
두 대회 연속 월드컵 결승전 ‘6골’ 공방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끝난 2022 카타르월드컵 결승전이 전 세계 축구 팬들로부터 ‘역대급’ 이었던 찬사를 받았다. 19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대회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와 연장전까지 3-3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해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통산 세 번째이자,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역대급 결승 무대였다. 양 팀 스코어가 보여 주듯 이날 경기는 전·후반 90분을 넘어 120분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아르헨티나가 전반 23분 리오넬 메시(파리생제르맹), 36분 앙헬 디마리아(유벤투스)의 연속골로 2-0 리드를 잡으며 승부는 아르헨티나 쪽으로 기울어 보였다. 하지만 후반 중반 들어 프랑스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후반 35분 킬리안 음바페(파리생제르맹)가 페널티킥으로 만회골을

넣은 뒤 1분 만에 한 골을 더하며 순식간에 2-2 동점을 만들었다. 결국 승부는 연장전으로 돌입했고, 양 팀의 골 폭죽은 계속됐다. 이번에도 아르헨티나가 연장 후반 3분 메시의 골로 다시 앞서가는 듯했으나, 10분 뒤 음바페가 페널티킥으로 다시 3-3의 균형을 맞췄다. 120분 싸움에서 승부를 내지 못한 양 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최후의 승자는 아르헨티나가 됐다. 각본 없는 드라마에 찬사가 쏟아졌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공식 소셜네트워크(SNS)에 “역대 최고의 결승전”이라고 적었다. 이날 결승전에서 양 팀 합쳐 총 6골이 나왔는데, 4년 전인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결승전 6골 공방이었다. 러시아 대회 때는 프랑스가 4골, 크로아티아가 2골을 넣은 바 있다.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인 리오 퍼디난드도 SNS에 “다신 못 볼 경기다. 최고의 팀이 맞붙었고, 아무도 몰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운데)가 18일(현지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리한 후 우승컵을 들고 동료, 팬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러지지 않았다”고 극찬했다. 36년 만에 조국 아르헨티나에 월드컵 우승을 안긴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도 “정말 미친 경기였다”며 혀를 내둘렀다. 또 5번의 월드컵 도전 만에 우승컵에 입맞춘 메시도 “언제가 우승할 줄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우승이 찾아오는 건 정말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카타르월드컵에선 조별

리그부터 결승전까지 총 172골이 터졌다. 이는 1998년 프랑스 대회와 2014년 브라질 대회의 171골을 넘어선 월드컵 한 대회 최다 골 신기록이다. 경기당 평균으로는 약 2.68골이 나왔는데, 이 부문 역대 최다 기록은 1954년 스위스 대회의 5.38골이다. 당시 참가국은 지금의 절반인 16개국이었다. /뉴시스

이정후 “2023시즌 후 해외 진출”...키움에 의사 전달

구단 “이정후 도전 의지 존중,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키움 히어로즈의 간판타자 이정후(24)가 2023시즌 후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키움 구단 관계자는 19일 “이정후 선수가 오늘 구단과 만난 자리에서

2023시즌을 마친 후 해외 진출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오늘 연봉 협상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해외 진출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정후 선수의 도전 의지

등을 존중한다. 내년 1월2일 공식 업무가 시작 되면 내부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정후는 그동안 해외 진출에 꿈을 밝혔지만, 구단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후는 2023시즌을 마치면 포스트시즌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키움이 최종 허락을 하고, 해외 구단이 이정후 영입을 원하면 계약은 성사된다. 2017년 키움에 입단한 이정후는 6시즌 동안 KBO리그에서 뛰었다. 특히 올해 타율 0.349에 193안타 113타점을 기록했고, 출루율(0.421), 장타율(0.575) 부문에서 1위에 올라 타격 5관왕에 등극했다. 통산 타율 0.342, 59홈런 470타점 531득점 65도루를 기록하는 등 KBO리그 최고 타자로 우뚝 섰다.

전남도청 양연수 2023 스쿼시 국가대표 승선



전남도청 양연수(32)가 스쿼시 국가대표에 승선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양연수 선수가 경북 김천에서 열린 ‘2023 스쿼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19일 밝혔다. 8명이 참가해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양연수는 7게임 중 5게임을 잇따라 승리해 3위권을 확보했다. 양연수는 부상약화를 막기 위해 2게임 기권해 최종 5승 2패로 국가대표에 승선했다.

생활속 물 절약 함께해요!

